

■ EU, 폐기물 소각법 개정 합의

○ 대기오염물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배출제한기준을 강화함

-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설 시멘트 킬른의 질소산화물 배출제한농도는 500 mg/m³로,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800 mg/m³로 각각 강화됨
- 그러나 ‘습식공정’에 따라 배출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소각로와 소형 킬른에 대해서는 배출제한농도가 2008년까지 1,200 mg/m³로 적용됨
-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신규 지침이 적용되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퓨란의 배출량이 연간 1,500 g에서 2005년에는 연간 11 g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함
- 같은 기간 동안에 카드뮴의 배출량은 6.3%로 감소하고 수은 역시 현재의 19.4%로 줄어듦 것으로 전망함
- 유럽의회가 다이옥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가 함유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¹⁾을 철회함으로써 EU 정부와의 합의가 도출됨
- EU 회원국 정부는 염소 함유 폐기물의 분리작업으로 인해 처리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과 특히 PVC²⁾가 우선적인 타겟이 될 것을 우려하였음

○ 새로운 폐기물 소각지침은 기존의 세 가지 지침을 대체하게 되며 유해 및 무해 폐기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

- 그렇지만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자체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는 펄프 및 제지산업체와 식품가공업체³⁾는 이러한 배출기준이 면제됨
- 배출감시 조건이 강화됨으로서 운영자는 모든 소각로에 대한 배출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함

○ 새로운 규정은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,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각각 적용될 전망임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

- 1) 다이옥신은 640 ℃ 정도에서 1초 정도 체류할 때 열분해가 시작되며 약 740 ℃에서는 99.9% 이상이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각온도를 높이면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됨
- 2) PVC (polyvinyl chloride)는 염소를 다량 함유한 화합물로서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짐
- 3) 그러나 식품안전을 고려해 식품폐기물을 가공공장 내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은 불허함